



저지문화마을 야외 실감형 콘텐츠 통할까

제주현대미술관 공모 사업 AR기술 등 활용한 콘텐츠 이르면 7월부터 가동 예정 소장품과 디지털 기술 만남 공공수장고엔 몰입형 아트

지난 1년, 코로나19가 밀어닥친 제주 지역 공립미술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속절없이 문을 닫아걸었다. 감염병 추세가 완화되길 기다려 재개관하는 식이었다. 온라인 채널은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2021년엔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들어선 제주도립 제주현대미술관

AR(증강현실) 기술 등을 이용한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과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다.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이르면 7월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제주현대미술관 입구 맞은 편에 자리잡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내 다목적 공간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실감형 영상 공간과 AR기술로 미술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수장고 다목적공간은 제주현대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한 몰입형

판타지 아트, 제주 사계를 담은 작품을 실감 체험하는 미디어아트,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갤러리 아트, 조명이나 거울 연출 등을 통한 미디어 아트 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디지털 기술로 기존 실내 전시와는 다른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제주현대미술관 야외 조각공원 등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실외에는 AR 기술을 기반으로 미술관 콘텐츠를 선보인다. 입주 작가의 작품과 정보를 소개하는 AR 도슨트, AR 미션을 통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예술 작품 감상,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을 다른 유저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체험이 이뤄진다. 특히 야외에서 행해지는 실감콘텐츠는 미래 기술을 활용해 미술관의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는 감염병 시대에 유효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소장품을 품은 미술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비대면 관람이 가능하다. 문체부는 올해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국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과 체험존 조성 지원을 벌인다. 공모 기간은 1월 15일까지로 선정된 박물관·미술관에는 소장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비용,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구역 조성이나 탐사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마음 지닌 생명체로 나온 환한 그릇

돌문화공원 고원종 도예전 분청사기 현대적 해석 작업

새해 전시장에 그릇들이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으로 마련한 고원종 도예전이다. 지난날 11일 막이 올라 내달 14일까지 두 달여 계속되는 이번 전시엔 주로 전통 물레 성형 방법을 이용한 분청사기호롱, 흑색분청사기토우, 분청사기귀얄문호, 분청사기빛살문호, 흑색분청사기호, 흑색분청사기그물문호 등 30여 점이 나왔다. 장항을 닮거나 자유분방한 느낌의 분청항아리, 철갑을 두른 듯 단단해 보이는 요철 점무늬 항아리, 긴 원통형의 각면 항아리 등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가마에서 꺼내놓은 작품들이다. 분청사기에 바탕을 두면서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들로 제주도를 분장토로 사용한 작품에선 독특한 질감과 색채를 만날 수 있다. 고원종 도예가와 교류해온 강요배 화가는 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질박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이번 전시에 부치는 글을 썼다. 강요배 화가



‘흑색분청사기호’ (2018).

는 “흙을 만지고 굽은 일은 동시에 마음을 닦는 일이고 그 결과물인 그릇은 마음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인생의 늦은 저녁에 큰 그릇들이 마음을 지닌 생명체로 살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고원종 도예가는 흥익대학원 산업공예과를 졸업했고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시 에밀유수암의 자신의 호를 딴 ‘고아방’ 공방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기획전예 맞춰 홈페이지에서 작가 인터뷰, 작업 과정을 다룬 온라인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710-7731. 전선희기자

자연과 사람 이야기에 스민 작은 희망

김진수 박길주 아은 한상범 4인 작가 참여한 ‘끝의 시작’

제주와 인연이 깊은 4명의 작가가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로 새해 작은 희망을 실어 나른다. 지난달 26일부터 갤러리카페 거인의정원(제주시 아라1동 대원길58)에서 펼쳐지고 있는 ‘끝의 시작’ 전이다. 제이제이아트맵, 와치바치협동조합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평면 작품 20여 점이 나왔다. 자연을 매개로 작업하는 김진수 박길주 한상범 작가, 인물의 여러 모습을 형상화해온 아은 작가가 출품했다.

35년 만에 귀향한 한상범 작가는 유년의 추억이 깃든 제주의 바다에 눈길을 뒀다. 거기엔 치유의 바다, 생명의 바다, 사랑의 바다가 있다. 아버지의 고향인 제주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은 작가가 그려낸 화면엔 얼굴이 흘러내리고 뭉개지거나 때로는 신체의 일부만 나타난다.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표정이다. 결혼과 함께 제주에 정착한 박길주 작가는 방대한 자연이 전해주는 다양한 질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김진수 작가는 깊고 넓은 품을 지닌 제주의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따스한



박길주의 ‘호흡’.

위로를 건넌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시는 이달 15일까지 계속된다. 전선희기자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을 사경한 작품.

묵향에 품은 메시지 “용기를 내어라”

제주가톨릭서예가 회원전 중견 서예가 8인 20여 점

묵향을 품은 글귀가 전하는 위로, 여기에 있다. 2019년 창립전에 이어 새해 두 번째 전시를 펼치는 ‘제주가톨릭서예가’ 회원전이다. ‘기도와 함께하는 서예전’이란 부제를 단 이번 전시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끌어온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란 제목을 붙였다. 코로나19 시국에

준비된 전시인 만큼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출품작은 박민자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김희열의 ‘말할 하나가’, 김영미의 ‘잡언 13장 3절’, 김혜정의 ‘진정’, 송근실의 ‘용기를 내어라’, 장기봉의 ‘태양의 노래’, 조용옥의 ‘마태오복음 4장 4절’, 좌혜정의 ‘요한복음 25-26절’ 등 20여 점이다. 제주의 중견 서예가 8인이 써 내려간 한문, 한글 작품을 볼 수 있다.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위원장으



박민자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로 ‘제주가톨릭서예가’ 회장을 맡고 있는 박민자 서예가는 “쉬지 않고 작품에 매진하는 서예작가들의 열망으로 주님을 통해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고자 예술혼을 작품에 실었다”고 밝혔다. 전시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 010-2695-0607. 전선희기자

수행의 1년... 부처의 말씀 옮겨 쓰다

제주불교문화대학 개설 전통사경연구반 졸업전

불교 경전을 옮겨 적는 의식을 뜻하는 사경(寫經). 제주에 전통사경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설된 제주불교문화대학 전통사경연구반이 1년 동안 수행한 사경 작품을 모아 제1회 졸업작품전시회를 연다. 사경은 옛적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경전을 베껴 책을 만들어서 유포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전통사경은 고려시대에 꽃피운 문화 예술로 불교 경전을 그대로 쓰는 것을 넘어

고도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먹을 갈아 세필로 하나하나 정자체로 써야 하는 붓글씨 작업은 내면이 고요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달 16-20일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졸업작품전에는 26명이 참여해 4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담아 심신을 다스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간 불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국전통사경회 회장인 행오스님, 제주 연봉사 상오스님, 사경 지도강사 관우스님의 찬조 작품도 나온다. 전선희기자

www.jejuwelling.com **해녀영양식** 제주해녀들이 직접 만든 **해삼몸국**

해삼몸국은 해녀들이 영양식으로 드시던 비법 그대로 제주전통방식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조리방법

- 전자레인지 조리시**
해동 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어 전용 덮개 또는 랩을 씌워 약 4분(700W 기준)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1KW 기준 3분
- 냄비 조리시 (직접 가열 시)**
해동 후 개봉하여 냄비 뚜껑에 부은 후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간이 되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양념을 더 넣어 드세요 오래 끓이면 짭수 있으니 조리시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 중탕 조리시**
해동 후 끓는 물에 제품을 봉지째 그대로 넣고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 끓는 물 중탕 조리 시 제품이 타질지 모르니 냄비의 뚜껑을 닫지 마십시오

해삼몸국의 특징

- 8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 잘 건조된 모자반을 찬 물에 불려 염분을 뺐 몸
-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몸에 좋은 해삼
- 3無 첨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해삼몸국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아요!

-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험생**
-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족**
-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어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 면역력 높이는 특별 영양식을 선호하는 **미식가**

※ 개인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와 '대파', '후추'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